

TV 17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Table with 5 columns: Channel (KBS1, KBS2, MBC, KBC/SBS, EBS), Program Name, Time, and other details.

SBS '동물농장' 제작진 동물학대 논란 해명

"주의력 결핍장애 소년 치유 과정 일뿐... 강아지 학대 안했다"

'동물 학대(사진)'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SBS '동물농장'의 제작진 등 관계자들이 잇따라 프로그램 홈페이지 게시판에 해명의 글을 올렸다. '동물농장'은 지난 6일부터 3회에 걸쳐 윤현진 아나운서가 진행하는 '동물매개치료' 코너를 새롭게 선보이고 있다. 이 코너는 정신치제 3급에 주의력 결핍과 과잉행동장애를 앓고 있는 7살 소년 지용이가 생후 2개월된 '몽실이'라는 이름의 강아지 래브라도 리트리버를 통해 치유돼가는 과정을 담는다. 그런데 2회(13일 방송)까지 방송된 현재 일부 시청자들이 "몽실이 강아지와 이틀 가까이 폭력으로 학대를 받고 있다"며 혐의의 글을 올린 것. 예를 들어 지용이가 몽실을 때리다든가 몽실이의 발톱을 깎아주다 피가 나는 등의 장면이 문제가 됐다.

이해 윤현진 아나운서를 비롯, 지용이의 누나 김희선 씨와 '동물농장'의 운영회 PD, 지용이의 치료에 참여한 동물매개치료사 정효정 씨가 15일 잇따라 게시판을 통해 장문의 글을 올려 해명을 나섰다. 우선 방송에도 등장했던 지용이의 누나 김희선 씨는 "지용이가 ADHD(주의력 결핍장애)라고 강아지와 같이 살 수 없다고 많이들 걱정하시는데 몽실이는 누가 뭐래도 지용이의 동생이고 지용이가 자기의 속마음을 이야기하는 정말 소중한 친구입니다"라고 말했다. 윤현진 아나운서는 "가족 분들이 최선을 다해 몽실을 돌보고 있고 지용이도 책임감을 느끼며 여동생 몽실을 챙기는 달라진 모습을 보여줬습니다"라고 강조했다. 또 치료 과정을 책임지고 옆에서 지켜본 동물매개치료사 정효정 씨는 방송이 편집과정에서 일부 자극적으로 보였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허



술하게 몽실을 방치하거나 학대시키면서 진행하지 않았다고 다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동물을 끄떡이 아끼시는 분들이 TV를 볼 것이라는 것을 아는데 어찌 그럴 수가 있겠습니까?"라고 반문했다.

"KBS, 수신료 채널·광고 채널 분리돼야"

건국대 김진영 교수 바른사회시민회의 토론회서 주장

KBS가 수신료 인상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며 찬반 양론이 일고 있는 가운데, KBS를 수신료 기반 방송과 광고 기반 방송으로 분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진영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지난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원남동 바른사회시민회의 대회의실에서 열린 정책토론회에 발제자로 나서 이같이 주장했다. "바람직한 공영방송의 모습과 공영방송

재원조달 문제'란 주제로 열린 이날 토론회에서 김 교수는 "KBS는 수신료 기반방송과 광고기반 방송으로 분리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상황이라고 생각되며 이러한 분리를 전제로 하지 않는다면 현재는 수신료 인상을 고려할 단계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공영방송이 그 목적에 부합하는 방송 프로그램을 만들지 않는다면 민영화하는 것이 적절하며 현재 방송 편성으로 보면 상

당한 비중이 민영화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KBS의 수신료 인상과 관련해 김 교수는 "고비용의 디지털 방송 재원을 디지털TV 수신을 소유하지 않은 소비자를 포함한 전체 TV 소유자에게 전가하려는 시도가 성급히 이뤄져서는 안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TV 수신이 소유 자체를 남부의 조건으로 삼고 있는 현 상황에 대해서 근본적인 재고가 필요하고 실질적인 시청자가 요금을 부담하는 수익자 부담의 원칙을 적극 적용해야 한다"면서 "KBS 일부(2TV)의 광고 기반 방송 전환과 시청자들이 고비용 디지털 방송을 수신료 기반방송으로 수용할 것인지 여부 등은 반드시 논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Advertisement for '국제보청기' (National Hearing Aid) featuring a woman with a hearing aid and promotional text.

케이블·위성TV 17일

Large table listing TV programs across various channels including YTN, MBN, KTV, MBC MOVIES, OCN, SBS, EBS1, and KBS Prime.